

3. 해설기사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산업 개발 전략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rine Sport Industry



조 우 정

Woo-Jeong C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교수
- Email: mikecho@hhu.ac.kr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엔(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1987년 이후, 지속가능성은 국가적 관심사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모든 개발 원칙에서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 2009; 송재호, 이성은, 2005; Ayala, 1995; Dolnicar & Leisch, 2008; Ko, 2001; Marin, Palmisani, Ivaldi, Dursi, & Fabiano, 2009; Northcote & Macbeth, 2005; Williams & Ponsfor, 2009).

우리나라도 국가 경제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이룬 2000년대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지표를 이용한 국가 및 지역 개발 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08년 새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지속가

능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 행동 및 정책으로 규정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을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정부는 블루오션인 바다에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해양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그린투데이, 2009). 또한 미래기획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주최한 '미래 한국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은 신해양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 수산, 해양자원, 해양 환경 등의 선진화를 통한 해양의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2010).

이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해양에 근접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또는 녹색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산업으로 인식된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해양스포츠산업 육성과 해양스포츠 섬유소재 개발 사업을 녹색성장 전략 마스터플랜에 포함하였으며 경기도는 경기도보트쇼와 국제요트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디어 노출 및 홍보 등 무형의 효과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전곡항 일대를 해양스포츠산업복합단지로서 육성시킬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수도권에 근접한 접근성을 활용해 모터보트,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관광산업을 진흥시킬 마리나 시설 설치 및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요트제조업 활성화,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그리고 해양스포츠관광산업 등을 통해 녹색성장 산업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스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하고 남해안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스포츠산업은 2012년까지 약 9,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 24%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울경제, 2010). 하지만 해양스포츠산업 중 해양스포츠 소형선박산업은 전세계 48조원 규모 중 우리나라 점유율은 100억원(0.02%)에 불과해 대형조선산업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의 잠재적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해양스포츠 참여인구의 경우 영국은 전인구의 7.23%인 3백만명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47.6백만명, 일본은 21백만명 이상이 해양스포츠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해양스포츠 참가인구는 전인구의 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산업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조우정, 2009a).

따라서 정부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스포츠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

다. 일례로 해양스포츠산업의 기반 시설인 마리나(marina)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전국에 총 43개소의 마리나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뉴시스, 2010). 또한 해양스포츠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스포츠 기구 대여업체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완화, 요트 조종의 민간 면허증 추진, 요트 운항 신고기준의 확대 등 다각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해양스포츠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및 환경이 조화를 이룬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공감코리아, 2009).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은 국가 경제 측면 또는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스포츠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해양스포츠산업의 환경적 영향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Jennings(2007)는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해양스포츠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 및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양스포츠산업은 그 자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기대하는 편익(benefits)을 극대화하고 비용(costs)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Collin, Jones, & Munday, 2009).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해양스포츠산업의 성공적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건 (Triple Bottom Line)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했다.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의 경제발전과 환경 훼손 간의 교환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간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낮추지 않는 수준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둔 개념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의미한다(조동성, 2007).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후변화, 지진, 물 부족, 사막화, 환경오염, 인구 증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지구상의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박영숙 외, 2009).

그렇다면 현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녹색성장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미래기획위원회(2009)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가기 위한 실천 전략이 녹색성장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이 녹색성장이라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추구하는 수동적 시각이 아닌 환경,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확대 및 국토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비전이며 기후 변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 중요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환경 보호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지만 환경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개발 요소로서 경제 발전, 사회적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 등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

축(triple bottom line: TBL)은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관련 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조동성, 2007; Luck, 2008).

먼저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속성으로서 산업 개발을 통해 국가 및 국민 경제를 확대하고 기업은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산업 개발과 기업 활동이 생태적 환경 보존과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공헌하며 생태적 환경을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산업 개발과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 노동 및 인권 등을 고려하고 제품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조동성, 2007).

이렇게 TBL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산업의 범위와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가? 둘째, 저탄소의 주거환경과 국토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가? 셋째, 기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여기서는 지속가능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론적 틀(frame)을 제시하고 해양스포츠산업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fram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3가지 축을 기초로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표1>과 같이 종합해 보았다. 첫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여 정도,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 지역민의 취업 창출 및 고용 기여 그리고 수익 창출 및 재투자 비율 등으로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관련 수역의 생태 환경 보존 노력, 환경 교육 프로그램 실행여부, 환경 오염 및 훼손 방지 노력 그리고 수변 공간 및 해양 스포츠시설에 대한 정비 노력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주민의 여가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도, 주민의 자긍심 및 이미지 향상 정도,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 정도 그리고 지역 주민 간 이해 증진 및 참여 유도에 기여 정도 등을 통해 해양스포츠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틀 부분에서 대안은 해양스포츠산업 유형별 지속가능성 요인 또는 지표틀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해양스포츠산업을 개발할 수 있다. 즉 해양스포츠산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해양자원과 산업 기반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해양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함을 보여준다.

표 1: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구분	요인	대안
경제적 지속 가능성	관련 산업 활성화	해양스포츠장비산업 (모터보트, 요트 건조 등)
	주민의 소득 증대	
	취업의 용의 및 고용 창출	
	수익 창출 및 재투자 유도	해양스포츠시설산업 (마리나, 리조트 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생태환경 보존	해양스포츠서비스산업 (장비임대 및 교육 등)
	환경 교육 프로그램	
	환경오염 및 훼손 방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변 공간 및 시설 정비		
사회적 지속 가능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해양스포츠관광산업 (이벤트 및 체험 등)
	자긍심 및 이미지 향상	
	사회적 안정성 기여	
	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출처: 송재호와 이성은(2005), 이희연과 차승훈(2004), 오정준(2003) 그리고 조우정(2009b)을 기초로 저자가 재구성함.

2) 해양스포츠산업 유형별 지속가능성

해양스포츠산업의 활동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 <표3> 그리고 <표4>에 나타난 것처럼, 해양스포츠산업을 지속가능한 개발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 또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Jennings, 2007).

표 2: 해양스포츠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요트 및 모터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객의 사용자 지불 수입 지역사회 소득 증대 효과 소득, 고용 유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출(leakage)효과(기술, 장비) 용품 및 서비스 누출효과
동력 해양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 효과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급효과의 누출
서핑 & 윈드 서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시장 확대 의류장비 프랜차이즈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비용 증가 업체간 경쟁 증가
스포츠 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관광객의 마찰
스쿠버 다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개발 효과 사회 간접 자본 증가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물가 상승

출처: Jennings(2007)를 수정 보완함.

표 3: 해양스포츠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요트 및 모터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자원의 효과적 개발 해양자원의 지속 교육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뚏에 의한 해저 바닥 손상 산호초 손상 마리나의 생태계 패턴 변화 해양 폐기물 공해 해양 동물과 충돌
동력 해양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방안 제시 수질의 중요성 인식 기회 제공 해양 환경 쟁점의 정치 이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생태계에 물리적 충격 오염원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해양 생태계 손상 (보트의 파편, 마스트 장비 고장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 등) 생태계 교란(해양 식물 짓밟기, 서식지 교란 등)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스포츠 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잡고나주기 프로그램 등으로 환경적 영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오염 가능성 ● 마리나 개발에 의한 생태 시스템 교란 ● 해양 쓰레기 방출
스쿠버 다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 해양 생태계 보존의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 해저에서 오염 물질의 축적 ● 프로펠러에 의한 동식물 손상 ● 해양 퇴적물 활성화로 인한 영향
래프팅 & 카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 증진 ● 타 해양스포츠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사이트에 의한 환경 파괴(캠프파이어, 쓰레기, 고무, 토양과 식물손상, 흔적, 역사적 자원 손실) ● 수질에 부정적 영향

출처: Jennings(2007)를 수정 보완함.

표 4: 해양스포츠산업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요트 및 모터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간 이해 증진 기회 제공 ● 문화적 교류 증진 ● 클럽 조직 참여 기회 제공 ●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병리 상태 유발 ● 문화적 상품화 ● 혼잡성 증가 ● 이용자 간 갈등
동력 해양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움, 모험, 도전 의식 고취 ● 자아실현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 시설의 상실 ● 이용자 간 갈등 ● 소음 발생 ● 안전 문제 대두
서핑 & 윈드서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문화성 표현 ● 개인주의 ● 모험, 익스트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수용 능력과 공간적 갈등
스포츠 피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존중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갈등 및 이용자 간 갈등 ● 사회적 괴리 및 전시 효과 ● 빈부의 격차 증대 ● 희귀보존지역에 대한 중요성 상실
스쿠버 다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집단내 가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효과 ● 편의시설의 상실 ● 혼잡성 증가 ● 교통체증 및 불편 초래
래프팅 & 카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 증진 ● 하위문화 특성 발전 ● 자아실현 ● 즐거움, 모험, 도전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성 증가 ● 편의시설의 상실 ● 희귀보존 지역의 중요성 상실 ● 사회적 수용력의 문제 발생 ● 낚시꾼과 래프터 간의 갈등 초래

출처: Jennings(2007)를 수정 보완함.

4.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1)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해양스포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해양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모터보트 및 요트 건조 등의 해양스포츠장비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잠재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 참여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스포츠이벤트 및 체험 활동을 통한 해양스포츠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유무형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관련산업과 지역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최고의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스컵 대회를 개최한 스페인 발렌시아는 57억 유로의 생산유발효과, 27억 유로의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7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경남발전연구원, 2009). 이는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인 11조 5천억 원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양스포츠산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해양스포츠장비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 그리고 업체간 과도한 경쟁은 아직 성숙되지 않는 해양스포츠산업이라는 파이(pie)를 확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산업의 기반시설인 마리나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해양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마리나 개발과 요트산업에 대한 투자는 잠재적 수요 예측과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클러스터 구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스포츠산업의 경제성 및 수익 창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산업체의 마케팅 노력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해양스포츠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디자인 및 생산 등의 전문가 양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중소조선연구원, 2010).

문제는 국내 해양스포츠산업 수요가 한정되어 막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한 해양스포츠장비 및 제품의 판매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 뿐 아니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해양스포츠장비의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산업체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의 잠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도 함께 해야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스포츠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클러스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해양스포츠 종목별 클러스터를 통해 해양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는 해양이벤트 단지를 구축해 아메리카스컵 및 볼보오션레이스 등과 같은 이벤트 특구를 운영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특구, 경남 통영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시장 경쟁력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선정 기준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지역의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자원, 산업기반 등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과 도시의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Yuen, 2007).

셋째,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산업의 기반시설인 마리나 조성 계획의 의미는 크다. 문제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마리나 수와 규모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민간기업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마리나 건설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조성계획을 수정해 잠재적 수요 시장에 근접한 거점을 중심으로 적절한 규모와 수의 마리나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우정, 2009c). 즉 대학, 산업체 그리고 정부 해양스포츠산업 개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해양스포츠산업의 시장성, 경제성 그리고 명확한 수요예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관련 해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체는 지속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때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해양스포츠산업이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Jennings (2007)가 언급한 것처럼, 해양스포츠산업은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 환경 및 생태의 보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해양환경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해양스포츠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 또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은 <표3>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해양스포츠산업은 건강한 해양환경, 해양생태 등과 공존할 때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동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친환경적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 산업 개발을 위해 규정, 구역화, 허가제, 행동강령 그리고 교육 등의 측면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전략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스포츠산업이 환경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의 75% 이상이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력 해양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트나 모터보트 제조과정에서는 무독성 오염방지 도료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 해양스포츠산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조우정, 2009b). 특히 미국의 마리나 산업의 경우 최소한 21개 이상의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Rhode Island Sea Grant, 1996).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BRMC(Blue Ribbon Marina Committee)라는 위원회를 통해 마리나 개발과 마리나 부지선정 등 관련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양보존 구역의 사용, 수질오염 그리고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구역의 마리나 개발 금지 구역 설정 등 마리나 개발과 관련된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정부 환경 단체인 환경교육재단(Found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EE)에서는 세계의 마리나와 해양 비치의 수질,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환경 관리 그리고 안전 등의 요소를 평가해 친환경적인 마리나에 대해 파란 깃발(the Blue Flag) 자격을 부여해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3,450개 이상의 마리나와 비치가 친환경 마크를 획득하였다(Luck, 2008).

둘째, 해양스포츠산업에 따른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과 해양환경 및 생태 보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표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구역화(zoning)의 문제는 해양스포츠 관광객과 지역주민 그리고 개발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며 특히 해양자원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그림 1: FEE의 친환경 마리나 프로그램(The Blue Flag)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으로 1306개소(해양의 1% 미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스노쿨링, 서핑 및 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활동이 제한되고 있다(World Parks Congress, 2003). 우리나라도 6559.2km²가 지정되어 해양자원 및 생태의 보호 등 해양환경 보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은 생태보전지역, 습지보존지역, 환경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스포츠 유형에 따른 명확한 활동 제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해양스포츠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유형에 따른 구역 지정과 더불어 이용객들의 시간 관리(schedules)를 통해서도 혼잡성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용유형, 이용객수, 시간 규제 등을 통해 해양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해양스포츠 활동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해양스포츠 활동의 허가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 생태 및 해양환경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 범위 안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제할 수 있어 해양자원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포츠피싱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는데 스포츠피싱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어족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정부에서는 스포츠피싱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어족 및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러한 해양자원의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이 스포츠피싱 라이선스 또는 허가증 발급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양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해양스포츠관광산업의 해양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포츠피싱 라이선스 판매점

넷째, 해양스포츠산업의 관련 주체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해양스포츠산업의 주체들은 해양스포츠 소비자, 공급자 등의 운영 체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보호 교육이 가능한 행동지침을 체계화해야 한다. 국제수상스키연맹(International Water Ski Federation: IWSF)은 수상스포츠를 위한 환경핸드북을 만들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핸드북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터보트와 수상스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관리의 혜택, 수상스키의 소음 관리, 환경오염 물질 관리, 그리고

조류와 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적 모터보트 및 엔진 정비법, 모터보트 청소, 페인팅 방법, 친환경적 쓰레기 관리 등이 IWSF 핸드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대부분의 마리나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호주마리나산업협회(MIAA)에서는 호주친환경마리나프로그램(Australia's Clean Marina Program)을 통해 친환경 마리나 핸드북이라는 구체적인 환경보호 지침을 관련 산업체에 배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나의 서비스시설 관리방안, 모터보트 보수, 엔진 수리, 연료관리, 구체적인 청소방법, 모터보트 운전 및 연료 주입 방법 그리고 쓰레기 감소 및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마리나 개발 및 운영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리나의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리나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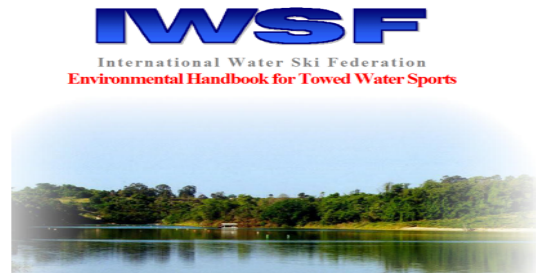


그림 3: 국제수상스키연맹의 환경 보호 핸드북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 및 생태 보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해양스포츠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양스포츠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주요 이용집단과 개인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제고할 수 있고 이용객의 지속가능한 실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관련 주체들이 해양 수련 및 교육 활동을 후원하는 등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모터보트관리국(Department of Boating and Waterways)은 해양안전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 교재를 발행해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3)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해양스포츠산업 분야 중 사회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해양스포츠관광산업이다. 해양스포츠관광 활동은 참여자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참여자 개인에게는 즐거움, 모험심 그리고 도전의식 등을 고취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스포츠관광객들의 체류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혼잡성 초래, 안전문제 대두, 소음 발생 그리고 식당 및 유흥업소의 가격상승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크다(Jennings, 2007; Luck, 2008).

따라서 해양스포츠산업이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지역민의 자긍심과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기

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의 경우 개발의 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제성이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해, 사회문화적인 이슈를 심도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시장 진입기에 있는 국내 해양스포츠산업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사회나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앞서 언급했던 해양스포츠산업의 사회문화적 이슈의 합리적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지기반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해양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즉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산업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진국형 여가활동인 해양스포츠를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교육 받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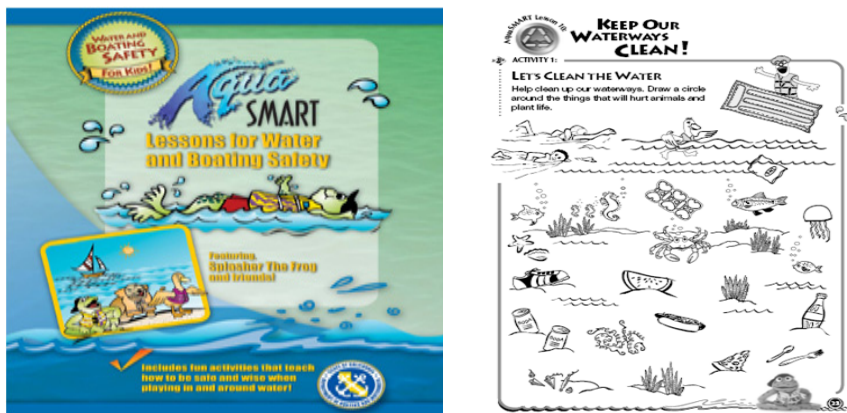


그림 4. 캘리포니아주 보트관리국의 해양환경 교육 교재

산시의 해양스포츠아카데미는 부산의 해양스포츠 산업 육성하기 위한 잠재 시장 확보 뿐 아니라 시민들의 해양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놓고 있다(부산일보, 2010). 타 지역도 요트산업 등 해양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갖고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요트아카데미나 스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다진다는데 의미가 크다.

둘째, 해양스포츠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해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로 잡고 더 나아가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진모, 2009; 조우정; 2009c). 우리는 해양산업 그리고 해양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 해양은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해양 안전 교육이나 해양스포츠 체험을 통해 실증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해양문화 그리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전 인류적 관심사를 해양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통해 건강, 행복,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한다면 해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해양스포츠산업의 잠재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결 론

해양스포츠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해양스포츠산업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은 경제성 또는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즉 해양스포츠산업이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아이টে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개발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특히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

석 정리해 보고 산업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지속성을 제외한 환경적 및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해양스포츠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경남발전연구원(2009), 경남 요트거점과 전략 추진을 위한 아메리카스 컵 도전계획. 연구보고서.
- [2] 공감코리아(2009. 11.03), 해양레저, 규제개혁이 블루오션을 연다.
- [3] 그린투데이(2009. 11.20), 녹색성장 해법, 해양에서 찾아라.
- [4] 뉴시스(2010. 03.09), 미래 한국 해양수산업 진화 포럼 출범.
- [5] 미래기획위원회(2009), 녹색성장의 길. 서울: 중앙북스.
- [6] 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2009). 2020년 위기와 기회의 미래: 유엔미래보고서2. 서울: 교보문고.
- [7] 부산일보(2010.01.16). 부산 미래 발전은 녹색산업 기반 성장동력.
- [8] 서울경제(2009.11.17). 운동장에 부는 녹색바람.
- [9] 송재호, 이성은(2005), "관광 지속가능성 측정: 제주도 사례", 관광연구, 19(2), 193-211.
- [10] 오정준(2003), "생태관광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610-629.
- [11] 이진모(200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12] 이희연, 차승훈(2004),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의 적용과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1-450.
- [13] 조동성(2007), *지속가능경영*.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14] 조우정(2009a), “부산의 해양스포츠이벤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해양과학기술도시를 위한 해양정책개발사업 연구보고서.
- [15] 조우정(2009b), “해양스포츠산업과 녹색성장 전략”, 충주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 [16] 조우정(2009c), “거시적 환경 및 정책 분석을 통한 해양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4(3), 203-217.
- [17] 중소조선연구원(2010), 부산 해양레저장비산업 인력양성사업: 제1차 수리 서비스 분과 교육개발위원회 회의자료.
- [18] Ahn, B.Y., Lee, B.K., & Shafer, C.S. (2002). “Operationalizing sustainability in regional tourism planning: an application of the limits of acceptable change framework”, *Tourism Management*, 23: 1-15.
- [19] Ayala, H.(1995), “Ecoresort: a green masterplan for the international resort industry”, *Int. J. Hospitality Management*, 14(3/4): 351-374.
- [20] Collins, A., Jones, C., & Munday, M. (2009).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mega sporting events: Two options?” *Tourism Management*, 30: 828-837.
- [21] Dolnicar, S., & Leisch, F.(2008). “Selective marketing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 672-680.
- [22] Green and Gold, Inc.(2001). *Defining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sport*. Accessed January 27, 2006, from <http://greengold.on.ca/issues/index.html>.
- [23] Jennings, G.(2007). *Water-based tourism, sport, leisure and recreation experiences*. Oxford, UK: Elsevier Inc.
- [24] Ko., J.T.G.(2001), “Assessing progress of tourism sustainabil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3), 817-820.
- [25] Laing, J., & Frost, W.(2010), “How green was my festival: Explor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staging green events”, *Int. J. Hospitality Management*, 29, 261-267.
- [26] Luck, M.(2008). *The encyclopedia of tourism and recreation in marine environments*. Oxfordshire, UK: CAB.
- [27] Marin, V., Palmisani F., Ivaldi, R., Dursi, R., & Fabiano, M.(2009), “Users’ perception analysis for sustainable beach management in Italy”, *Ocean & Coastal Management*, 52, 268-277.
- [28] Northcote, J., & Macbeth, J.(2005), “Conceptualizing Yield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199-220.
- [29] Rhode Island Sea Grant(1996). *Making a difference in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of the marina industry*. IMPACT, RIU_G_96_012.
- [30] Williams, P., & Ponsford, I.(2009), “Confronting tourism’s environmental paradox: transitioning for sustainable tourism”, *Futures* 41: 396-404.
- [31] World Parks Congress(2003). *Target is set for high seas’ MPA*. MPA News, 5(4): 1-6.
- [32] Yuen, B.(2007), “Sport and urban development in Singapore”, *Cities*, 25: 29-36.